

가계 재무전략 유형별 재무성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types of Household Financial Strategy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강사 박진영*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Dept. of Human Ecology, KyungSung University

Lecturer : Park, Jin-Yeong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Moon, Sook-J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and investigate major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data of 3,994 households is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classified household financial strategy types were Residual (44.6%), Informal Institutional (13.3%), Financial Assets (16.7%), Real Estate (13.4%), and Diversified Portfolio (12.0%).
- (2) The criteria of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were relative, not absolute.
- (3)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y types changed largely during a short period(1999-2000).
- (4) In all households, the variables that affected changes in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were education, occupation, number of children, residential location and home ownership.
- (5) Households that employed a diversified portfolio strategy had the greatest financial performance (2,316,000 won net gain). (6) In all households, the variables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financial performance were the number of children, assets and debts. The financial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y.

▲주요어(Key Words) : 가계재무전략(household financial strategy), 잔여저축형(residual), 비제도형(informal institutional), 금융중심형(financial assets), 부동산형(real estate), 다양형(diversified portfolio)

1. 서론

1990년대 후반 국가적으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계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재무관리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가계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가 변화되거나 자원의 양적인 면에서도 큰 감소를 경험하고 있어 어떤 자원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보다는 소유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정운영·황덕순·홍은실, 2002).

* 주저자 : 박진영 (E-mail : pjy21kr@hanmail.net)

이러한 가계 재무관리 위기의 공통점은 자본 및 자산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예측하여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투자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위기상황에서도 큰 수익을 누린 가계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수익과 손실을 결정하는 요체는 가계 재무관리에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여 위험을 관리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본 및 자산 시장의 동향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투자 자산을 선택하여 환경의 위험에 얼마나 대응했는지 여부가 자산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나타난 것이 '재테크'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대중매체에서 널리 다루어지기 시작한 재테크는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이용하고 증식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된다(이용숙, 1993). 자산증식에 관한 높은 관심으로 금융기관 및 언론사가 제공하는 재테크강연회와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재테크 상담코너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테크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자사의 영업실적 향상과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모든 가계에게 효율적인 저축과 투자의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계의 자산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재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 실물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함한 가계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가계의 재무전략을 유형화하고, 가계재무전략 유형별 재무성과를 분석하며,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가계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 재무 연구의 접근법

가계의 자산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체계론적 접근법에 따른 가계재무관리와 가계의 자산과 부채보유 실태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계론적 접근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연구(계선자·유을용, 1999; 김연정·김순미, 1991; 김순미, 1993; 김효정, 1999; 이상협, 1999; 이선형·이연숙, 1997;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5, 1998; 홍향숙, 1997; Hira, 1997; Mugenda·Hira & Fanslow, 1990; Parrotta & Johnson, 1998; Titus·Fanslow & Hira, 1989)들은 투입, 변환과정, 산출의 체계론에 근거하여 재무관리가 과연 변환과정으로서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결과, 재무관리가 변환과정을 통하여 재정만족도나 안정감과 같은 산출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같은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산출변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손상희, 2000). 이처럼 체계론적 접근법은 가계재무관리가 변

환과정으로서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데는 적합하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가계가 행하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실제적인 포트폴리오선택행동의 파악에는 포트폴리오접근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계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며, 저축 및 투자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성뿐 아니라 안전성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계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대안들 중 많은 부분이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박정식, 1993). 이러한 위험분산의 결과로서 개별자산을 여러 개 결합한 자산 군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의 집합을 만들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자산 군을 의미하는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Bodie, Kane & Marcus, 1995).

2.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한 재무성과 분석틀

1) 포트폴리오 다양성의 이론

가계의 포트폴리오 다양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간간 효용극대화 이론에 의한다면 개인의 기간 선호체계와 소득, 이자율 등의 함수로 소비와 저축, 부채가 결정된다. 위험피라미드 모형에 의하면 자산의 수준에 의하여 위험 자산의 보유정도가 결정된다. 재고조정가설에 의하면 보유량과 회귀량의 차이와 교차 조정계수에 의하여 포트폴리오가 조정된다. 행동주의 생애주기 가설에 의한다면 가계의 은퇴대비 전략, 차용의 제약, 연금화의 제약(자본시장의 불안정) 등에 의하여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세대간 이전가설에 의하면 예방적 동기(기대여명의 불확실성), 상속동기 등에 의하여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2) 포트폴리오 구성의 규범적 모형

(1) 투자수익과 투자위험

자산관리자는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투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투자수익을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의 성과는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투자를 결정하는 현재시점에서 보면 투자수익은 항상 불확실하다. 이처럼 자산관리의 결과가 불확실한 세계에서는 투자결정에서 투자수익률(rate of return)과 함께 투자위험(risk of return)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투자위험은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의 재무적 위험, 경영위험, 준거집단에 의한 위험 등을 포함하는 비체계적 위험은 한 가정이나 몇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므로 상이하고 광범위하여 가정별로 예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반면에 분산투자로서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non-diversifiable risk)이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이라고도 한다. 체계적 위험에는 이자율위험, 구매력위험, 시장위험 등이 있다.

(2) 투자위험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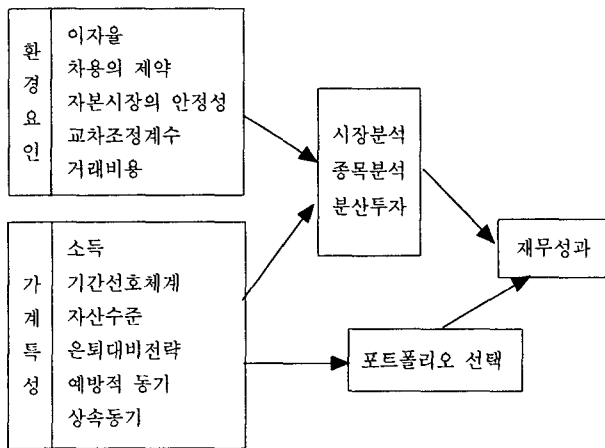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기회집합들 중에서 효율적 프런티어 선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효율적 프런티어는 기회집합의 표면에 있는 포트폴리오로서 이 조합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위험을 분산시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응으로서는 시장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들 수 있는데, 시장분석은 경기순환, 경제정책변수, 경기지표 등 경제변수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은 자산의 내재가치를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이형순, 1986).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투자해야하고 합리적으로 시장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대응행위는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구성의 규범적 모형에 입각하더라도 효율적 프런티어가 다양한 조합으로 존재하게 되며, 다양한 기본적 분석과 시장분석의 결과로서 가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다양해 질 수 있다.

3) 재무성과의 분석틀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서술적 이론과 규범적 모형을 통합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은 모형이 도출된다. 이 모형은 포트폴리오 구성과 재무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변수를 측정할 수도 없으며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도 없다.



<그림 1> 가계 재무성과 분석틀

3. 포트폴리오 접근법으로서 가계재무전략

Daft(1997)는 "전략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을 조절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활동 계획이며,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핵심역량과 시너지 효과가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Gunnarsson과 Wahlund(1994)는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구조화된 의사결정과 전문적인(well-informed) 포트폴리오 결정을 의미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재무전략'이란 "부채와 신용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재무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집단들 중에서 한집단내에서 관측되는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가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자산과 부채를 운용하는 방식을 '가계재무전략'이라고 한다(박근주, 1999).

Wahlund & Gunnarsson (1994, 1996, 1997)은 35개의 자산과 부채가 포함된 포트폴리오 보유여부를 군집분석을 통하여 잔여저축형, 강제저축형, 보장저축형, 투기형, 신중투자형, 다양형으로 가계재무전략을 유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계재무전략의 유형화를 시도한 박근주(1999)는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의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2,042가구의 31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보유 여부를 군집분석하여 가계재무전략유형을 잔여저축형, 은행중심형, 비제도형, 근접기관형, 공격투자형 그리고 다양형으로 6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가계재무전략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연령, 교육년수, 취업형태, 자녀수, 거주지역, 자가소유여부, 월평균총소득, 건강상태, 주관적 경기전망으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가계재무전략의 유형화는 어떠한가?
 - [1-1] 가계재무전략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1-2] 가계재무전략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가계재무전략유형은 변화하는가?
 - [2-1] 1999년-2000년 사이의 가계재무전략유형의 변화는 어떠한가?
 - [2-2] 가계재무전략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가계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 및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1] 가장 성과가 높은 가계재무전략유형은 무엇인가?
 - [3-2] 가계재무전략유형별로 재무성과는 어떠한가?
 - [3-3]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분석자료 및 측정도구의 구성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1999년과 2000년에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2차년도 자료 및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 자료는 2차와 3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3,994가구의 가구용 자료 및 개인용 자료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 구성요소는 <표 1>과 같다.
- (2) 가계재무전략: 가계의 자산과 부채의 운용방식을 의미하며, 가계의 자산과 부채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구성요소 보유여부를 분석하여 유형화한다.
- (3) 순자산: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 (4) 총자산: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합을 의미한다.
- (5) 유형변화: 이전의 재무전략유형에 상관없이 현재의 재무전략유형으로의 변화여부를 의미한다.
- (6) 건강상태: 본인 진술 건강여부에 대한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하다.
- (7) 주관적 경기전망: 경기에 대한 응답자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 (8) 재무성과: 종속변수로서 재무성과는 특정기간의 순자산 총액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표 1>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측정도구
자산	은행예금	은행요구불예금, 은행저축성예금, 기타 금융기관예금
	주식채권신탁	주식, 국채, 회사채,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불입총액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 및 기타
	계불입금	아직 타지 않은 계 불입총액
	사채준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기타금융자산	현금 등 기타 금융자산
	거주의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현 시세
	임차보증금	전세, 월세 등 부동산 임차시의 보증금
	부채	금융기관부채
비금융기관부채		회사로부터 빌린 돈 등 비금융기관부채
사채빚		개인적으로 빌린 돈 또는 친척/친지에게 빌린 돈 등
계상환예정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기타부채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부채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거주주택 포함)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자료는 SAS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통계분석으로서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평균분석과 빈도분석을 적용하였다. 가계재무전략의 유형화를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각 포트폴리오 구성요소의 보유여부를 대상 자료로 삼았다.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Ward방법에 의하여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군집의 수를 7개로 했을 경우 그 미만으로 정할 경우보다 반부분(semi-partial) R^2 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6개의 경우 7개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5개로 했을 경우 반부분(semi-partial) R^2 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군집의 수를 5개로 정하였다.

가계재무전략 유형의 변화와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표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무전략유형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의 분석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N=3994)

변수명	응답범주	빈도(%)	변수명	응답범주	빈도(%)
가구주 연령	20-29세	249(6.2)	가구주 교육년수	초졸이하	940(23.7)
	30-39세	959(24.0)		중졸	626(15.8)
	40-49세	1074(26.9)		고졸	1473(37.2)
	50-59세	786(19.7)		전문대졸	205(5.1)
	60-69세	586(14.7)		대졸	591(14.9)
	70세이상	340(8.5)		대학원졸이상	120(3.0)
평균	48.9세	평균	10.57년		
고등학생 (재수생) 이하 자녀수	1	741(35.9)	자가 소유여부	자가 전세 월세	2323(58.2)
	2	1156(56.0)			1169(29.3)
	3이상	166(8.1)			502(12.6)
평균	0.89명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1768(44.7)	거주지역	서울	985(24.9)
	비임금근로자	1160(29.3)		광역시	1222(30.9)
	미취업자	1027(25.9)		시군	1748(44.2)
건강 상태	아주 좋음	698(17.7)	주관적경기 전망	매우부정적	1499(3.8)
	약간 좋음	1816(45.9)		약간부정적	751(19.0)
	보통	814(20.7)		보통	1714(43.4)
	약간 나쁨	498(12.7)		약간긍정적	1307(33.0)
	아주 나쁨	119(3.0)		아주긍정적	33(0.8)
평균	2.38	평균	3.08		

* 결측값으로 인하여 빈도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2. 재무전략의 유형화

3차년도 자료(2000년)의 15개 자산과 부채 보유여부에 대한 군집분석결과, 가계재무전략은 <표 3>과 같이 유형화되었다. 가계재무전략 유형별 가계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군집 1은 조사대상 가구의 44.6%가 해당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저축성보험, 계불입금, 사채준돈, 금융기관부채, 비금융기관부채, 기타부채에서 가장 낮은 보유비율을 보여주었다. 5개 군집 중에서 ①이 6개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포트폴리오의 보유비율도 아주 낮으며 ④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은행예금과 임차보증금의 보유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보유비율도 적고 부채의 보유비율도 적은 군집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저자산 저부채 집단을 잔여저축형이라 명명한 Wahlund & Gunnarsson (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군집 1을 잔여저축형으로 명명하였다. 잔여저축형은 자산수준도 낮고 부채수준도 낮으므로 저자산-저부채형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표 3> 포트폴리오 보유비율에 의한 재무전략 유형화 결과(2000년)

재무전략유형	잔여저축형	비제도형	금융중심형	부동산형	다양형	
군집번호*	1	2	3	4	5	
자산	은행예금	56.8	① 1.1	④ 98.2	23.5	64.7
	주식채권신탁	2.4	2.3	④ 25.5	① 0.2	8.8
	저축성보험	① 9.2	10.9	④ 96.7	85.0	10.2
	사회보험	3.9	① 2.1	3.6	6.4	④ 6.9
	계불입금	① 0.7	④ 5.6	4.4	1.5	1.9
	사채준돈	① 1.3	3.4	④ 7.7	3.4	5.4
	기타금융자산	0.6	0.8	④ 1.1	① 0.0	0.8
	거주주택외 부동산	1.0	① 0.6	7.8	50.3	④ 98.3
	임차보증금	21.8	④ 31.6	① 5.3	19.5	11.9
부채	금융기관부채	① 12.3	④ 99.4	25.5	34.1	61.4
	비금융기관부채	① 1.8	3.4	④ 5.9	3.4	2.5
	사채빚	9.7	④ 20.2	① 1.1	13.5	6.3
	계상환예정금	0.7	④ 2.3	1.7	① 0.2	1.0
	기타부채	① 0.2	0.6	0.6	④ 0.9	0.4
	임대보증금	3.9	8.5	① 3.3	19.5	④ 38.6
	빈도(N)	1785	531	666	533	479
백분율(%)	44.6	13.3	16.7	13.4	12.0	

H: 해당 포트폴리오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유형에 H를 부여하였음.
 L: 해당 포트폴리오를 가장 적게 보유하는 유형에 L을 부여하였음.
 * SAS 분석결과 부여된 군집번호(군집2는: 잔여저축형과 자산수준이 비슷한 저자산집단이며 금융기관부채, 사채 및 계상환예정금 등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부족형' 등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군집명칭도 계불입금이 가장 많다는 점과 사채빚과 계상환예정금 등 비제도권 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포괄하는 용어는 되지 못하므로 박근주(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비제도형이라 명명하였다)

잔여저축형은 연령이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은 50세로 나타났다. 교육년수는 9.6년으로 전체평균보다 낮으며 5개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자가보유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52%이며 총소득이 131만원으로써 5개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군집 2는 조사대상 가계의 13.3%가 해당되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계불입금, 임차보증금, 금융기관부채, 사채빚, 계상환예정금에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④를 나타내고 있으며, 은행예금, 사회보험, 거주외 부동산에서는 보유비율이 가장 낮은 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 군집은 전통적인 제도권의 자산인 은행예금이나 사회보험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비제도권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비제도형이라 명명하였다. 비제도형은 자산수준이 낮고 부채수준이 높으므로 저자산-고부채형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비제도형은 연령이 47.5세로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낮으며, 교육년수는 10.6년으로 전체평균과 거의 비슷하다. 임금근로자가 38%, 자영업자가 38%, 미취업이 24%를 차지하였다. 서울이나 대도시 보다는 시,군에 많이 거주하며, 59%가 자가 소유하고 있다. 총소득은 136만원으로 군집 1보다 약간 높았다.

군집 3은 조사대상 가구의 16.7%가 해당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보험, 사채준돈, 기타금융자산, 비금융기관부채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④를 나타냈다. 한편 임차보증금, 사채빚, 임대보증금의 보유비율은 가장 낮은 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군집은 은행예금이나 저축성보험의 보유비율이 각각 98.2%, 96.7%로 제도권금융기관의 예금을 선호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 그리고 비제도권 부채인 사채빚의 보유비율은 가장 낮아서 부동산이나 비제도권 부채는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행예금과 저축성보험에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④를 나타내므로 이 유형을 금융중심형이라 명명하였다. 금융중심형은 자산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자산 중에서도 예금과 보험이 많으므로 고자산-예금보험형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금융중심형은 연령이 전체평균보다 낮은 43세이며 5개 유형 중 가장 연령이 낮았다. 교육년수는 약 13년으로 5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다.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은 72%를 차지하며, 미성년 자녀수가 1.16명으로 5개 유형 중 가장 많다.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도 34%로 5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연령이 어린 관계로 자가소유비율은 군집 1과 비슷한 53%를 나타냈다. 총소득은 5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228만원이었다.

군집 4는 조사대상 가계의 13.4%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록 거주외 부동산이 최고 보유비율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50.3%의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5개 군집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외 부동산이 외에도 저축성보험이 85%, 임대보증금이 19.5%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거주와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나 다양한 자산은 없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 유형을 부동산형이라 명명하였다. 부동산형은 자산수준이 높고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높으므로 고자산-부동산형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부동산형은 교육년수가 11년으로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으며,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고(47%), 미성년자녀수가 1.04명으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시,군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52%) 자가 보유비율이 6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총소득도 187만원으로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군집 5는 조사대상 가계의 12%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보험, 거주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최고의 보유비율인 ④를 나타냈다. 비록 3개의 ④가 있지만 은행예금(64.7%), 주식채권신탁(8.8%), 사채준돈(5.4%), 금융기관부채(61.4%)에서 5개 군집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①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군집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자산과 부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등 거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보유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다양형이라 명명하였다. 다양형은 자산을 여러 가지 유형의 자산으로 분산하여 소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산형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다양형의 연령은 평균 53.8세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으며(47%), 연령이 높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수도 0.71명으로 5개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군에 거주하는 비율도 60%로 나타나 5개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자가소유비율도 78%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으며, 총소득은 198만원으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하면 재무전략 유형의 개념은 확고부동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변해 가는 개념이며 명확한 분류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재무전략 유형의 변화

1) 가계의 재무전략 유형 변화

2차(1999)년도 조사 자료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한 재무전략 유형화의 결과, 잔여저축형, 비제도형, 금융중심형, 부동산형, 다양형으로 비교적 명확히 분류되었다.

가계재무전략 유형의 변화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재무전략을 변화시키지 않은 가계의 숫자는 모두 합하면 1,667가구로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재무전략을 변화시킨 가구는 58.3%인 2,327가구였다. 1년 사이에 절반이상의 가구가 재무전략 유형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큰 변화의 원인은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의 최악의 경제상황과 1999년 경제회복기조의 시작과 아울러 코스닥(KOSDAQ) 벤처붐의 등장, 부동산 가격의 대폭 하락 등의 경제 환경변화로 인하여 자산관리의 양태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전략유형별 변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저자산계층인 잔여저축형의 경우는 65.44%가 전략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1997년 후기의 IMF여파가 아직도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형은 18.38%만 전략유형을 그대로 유지할 뿐, 잔여저축형(33.46%)과 다양형(33.46%)에 똑같은 비율로 분산되어 가장 많은 유형변화를 나타냈다. 부동산형에서 잔여저축형으로의 변화 이유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틈을 타서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가 매매나 임대가 부진하여 오히려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헐값에 처분해야 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형에서 다양형으로의 변화이유는 유례가 없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주식, 채, 사채,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자산의 보유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가계재무전략 유형별 가계의 특성

변수 (단위)	전체	잔여저축형 군집 1	비제도형 군집 2	금융중심형 군집 3	부동산형 군집 4	다양형 군집 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세)	48.95 13.57	50.46 14.52	47.54 11.99	43.01 11.13	48.44 12.44	53.83 12.83
교육년수 (년)	10.57 4.45	9.58 4.64	10.62 3.80	12.81 3.24	11.05 4.17	10.53 4.48
임금근로자 (%)	0.44	0.38	0.38	0.72	0.47	0.28
자영업자 (%)	0.29	0.25	0.38	0.13	0.35	0.47
미취업자 (%)	0.27	0.37	0.24	0.15	0.18	0.25
미성년 자녀수 (명)	0.89 0.97	0.76 0.93	1.0 0.99	1.16 0.95	1.04 1.03	0.71 0.97
서울 (%)	0.24	0.24	0.23	0.34	0.22	0.17
대도시 (%)	0.30	0.34	0.33	0.26	0.26	0.23
시,군 (%)	0.46	0.42	0.44	0.40	0.52	0.60
자가소유 (%)	0.58	0.52	0.59	0.53	0.63	0.78
총소득 (만원)	163.6 211.1	131.37 126.34	136.64 100.22	227.86 383.35	187.54 175.61	197.75 225.32
건강상태 (점)	2.38	2.54	2.36	2.04	2.28	2.42
경기전망 (점)	3.08	3.07	3.03	3.06	3.20	3.07
3차년 도순자산 (만원)	7802 11692	5471 7185	2893 7258	8918 9496	10431 14494	17588 19585

* 한 개의 값만 제시된 것은 평균값임.

<표 5> 재무전략 유형의 변화

빈도 백분율 행백분율 열백분율	3차년도 (2000년)					합계 %	
	잔여 저축형	비 제도형	금융 중심형	부동산형	다양형		
2 차 년 도 (1 9 9 9 년)	잔여 저축형	939	130	146	148	72	1435 35.93
		23.51	3.25	3.66	3.71	1.80	
		52.61	24.48	21.92	27.77	15.03	
	비제도형	65.44	9.06	10.17	10.31	5.02	764 19.13
		217	253	80	98	116	
		5.43	6.33	2.00	2.45	2.90	
	금융 중심형	12.16	47.65	12.01	18.39	24.22	1295 32.42
		28.40	33.12	10.47	12.83	15.18	
		488	113	368	183	143	
	부동산형	12.22	2.83	9.21	4.58	3.58	272 6.81
		27.34	21.28	55.26	34.33	29.85	
		37.68	8.73	28.42	14.13	11.04	
	다양형	91	12	28	50	91	228 5.71
		2.28	0.30	0.70	1.25	2.28	
		5.10	2.26	4.20	9.38	19.00	
합 계 %	33.46	4.41	10.29	18.38	33.46	3994 100.0	
	50	23	44	54	57		
	1.25	0.58	1.10	1.35	1.43		
	2.80	4.33	6.61	10.13	11.90		
	21.93	10.09	19.30	23.68	25.00		

(단위: 빈도, %)

2) 가계재무전략 유형 변화의 결정 요인

재무전략의 유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계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6>.

분석결과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미취업자에 비하여 임금근로자일수록, 미취업자에 비하여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자가를 소유할수록 재무전략 유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시,군에 비하여 서울에 거주할수록, 시,군에 비하여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재무전략 유형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전체모형에서의 경향은 전략유형별로 달리 나타났다.

4. 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와 재무성과의 결정요인

1999년 대비 2000년도의 전체 재무전략유형의 총 재무성과는 가구당 평균 618만원의 순자산 감소가 있었다.

전체재무전략의 총 재무성과와 각 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6> 재무전략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분석 결과#

변수	전체	잔여 저축형	비제도 형	금융 중심형	부동산 형	다양형
연령		-0.018**		0.030**		
교육년수	0.047***	0.076***	0.058*			-0.162*
임금근로자 (R:미취업)	0.298**					
자영업자 (R:미취업)	0.802***	0.523**				
자녀수	-0.193***					
서울 (R:시군)	-0.236**	-0.329*				
대도시 (R:시군)	-0.196*					
자가소유	0.299***	0.630***	-0.402*	-0.377*		
총소득		0.006***				-0.001**
건강상태						
경기전망					-0.455*	0.337*
상수	-0.896***	-1.262**			6.129***	5.082**
Gamma	0.298	0.556	0.281	0.269	0.441	0.595
-2 Log L	4978.7***	1952.3***	677.3**	862.0***	300.1**	286.6***
카이자승값	292.232***	432.497***	32.673**	38.305***	25.247**	56.177***

* p<.05, ** p<.01, *** p<.001 R: 준거집단(Reference group)
#: 3차(2000)년도 가계재무전략유형 기준임 (변화=0, 유지=1)

<표 7> 전체재무전략의 총 재무성과

구분	3차년도		2차년도		증가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동산	8,293	11,975	8,759	15,035	-416	9,413
금융자산	1,315	3,172	1,274	2,721	44	3,028
총자산	9,546	12,950	10,034	16,021	-408	9,979
총부채	1,801	4,495	1,551	3,932	249	3,932
순자산	7,802	11,692	8,482	14,798	-618	9,616

* 결측값에 의하여 금액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단위: 만원)

각 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는 다양형(+231만원), 금융중심형(+22만원) > 부동산형(-356만원) > 잔여저축형(-751만원) > 비제도형(-1992만원)의 순으로 높은 재무성과를 성취하였다<표 9>.

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유형분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보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기타금융자산, 거주주택의 부동산이 많을수록, 금융기관부채, 사채부채, 기타부채, 전세금/임대보증금이 적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7%로 낮은 수준이다.

<표 10> 재무전략 유형별 재무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8> 재무전략 유형별 재무성과[#]

구분	잔여 저축형 (N=1785)	비제도형 (N=531)	금융 중심형 (N=666)	부동산형 (N=533)	다양형 (N=47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차년도 부동산	5258 6836	6099 7146	6990 8943	11834 15814	20038 19675
3차년도 금융자산	826 1856	212 836	2827 4570	1222 2552	2368 5257
3차년도 총자산	6078 7398	6307 7255	9621 10160	13042 16416	22238 21659
3차년도 총부채	605 1927	3454 4303	790 2168	2644 5403	4890 8673
3차년도 순자산	5471 7185	2893 7258	8918 9496	10431 14494	17588 19585
2차년도 부동산	6055 9552	6986 10522	8026 11739	11501 19179	18768 26146
2차년도 금융자산	963 2350	580 1188	2005 2593	1542 3748	1890 3543
2차년도 총자산	7018 10347	7567 10667	10032 12827	13043 20811	20659 27267
2차년도 총부채	795 2479	2616 4881	985 2441	2236 5115	3214 5940
2차년도 순자산	6222 9570	4951 10161	9046 12009	10807 18746	17444 25718
부동산 증가분	-800 5858	-815 6069	-920 8215	332 12917	1344 17003
금융자산 증가분	-135 2214	-367 1205	837 4008	-319 3668	475 4227
자산 증가분	-937 6368	-1188 6183	-212 8681	13 13630	1720 17972
부채 증가분	-190 2686	838 4915	-195 2479	408 4071	1675 6706
순자산 증가분	-751 6056	-1992 6865	22 8137	-356 12914	231 17460

: 3차(2000)년도 가계재무전략유형 기준임 (단위: 만원)

* 결측값에 의하여 금액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표 9> 재무전략 유형별 재무성과의 차이 검증[#]

구분	유형	잔여 저축형	비제도형	금융 중심형	부동산형	다양형	F값
	Mean	Mean	Mean	Mean	Mean		
순자산 증가분		-751.4	-1992.4	22.0	-356.4	231.6	45.6***
D	c	d	a	b	a		
빈도 (%)		1783 (44.79)	530 (13.32)	663 (16.66)	532 (13.37)	472 (11.86)	3980 (100.0)

*** p<.001 # 3차(2000)년도 가계재무전략유형 기준임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같은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이 3980임.

독립변수	전체	잔여 저축형	비제도형	금융 중심형	부동산형	다양형
연령						
교육년수						
임금근로자 (R: 무직)						
자영업자 (R: 무직)						-5373*
고등학생(재수생) 이하 자녀수	598.36**					
거주지역(서울) (R:시·군)			-1323*			
거주지역(광역시) (R:시·군)						
자가소유여부						
월평균총소득		-1.17***				
건강상태						
주관적 경기전망						1702.8*
금융자산(은행예금)	0.22**	0.42***		0.67***		
금융자산(주식, 채권, 신탁)	1.10***			0.73**		1.64**
금융자산(저축성보험)	1.00***			0.84**	1.84***	
금융자산(계)						
금융자산(사채)	1.01***		1.28*	2.07***		1.27*
금융자산(기타)	1.38*	2.45**				
부동산(거주주택 외부동산)	0.12***				0.26***	
부동산(부동산임차여부)		1565.6**				
부채(금융기관)	-0.32***	-0.46***	-0.30**		-0.60***	-0.46**
부채(사채)	-1.05***	-0.69**	-1.15***		-0.91*	-2.80**
부채(기타)	-0.82**	-0.93***				
부채(전세금/임대보증금)	-0.64***	-1.00***	-1.03***		-0.78***	
유형유지						
2차년도 비제도형		1362.7**		2470*	13408***	8269.9**
2차년도 다양형		-9351***	-5236***	-5078***	6607.7**	
2차년도 잔여저축형			-1295*	2122*	13143**	
2차년도 금융중심형		-1045***			12346***	
2차년도 부동산형		-7257***	-5979***			
F값	13.25***	17.06***	6.97***	4.32***	4.70***	3.26***
수정된 R ²	0.07	0.22	0.24	0.13	0.16	0.14

* p<.05, ** p<.01, *** p<.001 R : 준거집단(Reference group)

: 3차(2000)년도 가계재무전략 기준임

재무전략유형별로 재무성과를 살펴보면, 잔여저축형에서 가장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유형분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보다 설명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가계특성변수 중 연령변수의 영향력은 전체모형과 재무전략 유형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재무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Danes & Morris, 1989; Danes & Rettig, 1993; Titus et al, 1989)과 상반된다.

교육년수도 전체모형 및 재무전략별 모형에서 모두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주관적인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김숙이, 1988; 이종해, 1993)와는 상이하며, 교육년수와 주관적인 재정만족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Heck(1983)와 Hira(198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저축성보험은 전체모형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며 전략유형별로는 비교적 자산수준이 높은 금융중심형, 부동산형에 있어서 재무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축액이 많을수록 재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김경자·박명숙·정운영, 2002; 김효정, 2000; 황덕순·정운영, 2001; Hira, 1987).

부채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재무성과가 낮아지므로 부채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유무와 재무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채가 없을수록 재무만족도가 높다고 한 황덕순·정운영(2001), 김경자 외2인(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전략유형의 변화도 재무성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무성과가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의 재무전략유형변화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1>.

<표 11>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전략의 유형 변화

재무성과가 높아진 경우		재무성과가 낮아진 경우	
비제도 -> 잔여저축	비제도 ->부동산 다양 ->부동산	다양 -> 잔여저축	다양 ->비제도
비제도형 -> 금융중심	잔여저축->부동산 금융중심->부동산	금융중심-> 잔여저축	잔여저축->비제도
잔여저축 -> 금융중심	비제도 ->다양	부동산 -> 잔여저축	부동산 ->비제도
			다양 ->금융중심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부채를 적게 보유하며, 대체로 더 높은 자산수준의 재무전략유형으로 변화할 때 재무성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가계재무 연구에 재무전략 유형 개념을 도입하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입각하여 재무전략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가계재무전략별 재무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연구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접근법과 체계적 접근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5개 자산과 부채의 보유 여부를 군집 분석한 결과 잔여저축형, 비제도형, 금융중심형, 부동산형, 다양형의 5가지 재무전략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재무전략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clear cut) 기준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이었으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둘째, 단기에 있어서 재무전략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년 사이에 과반수 이상의 가구(58.3%)가 재무전략을 변경하였다.

셋째, 재무전략유형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소는 전체모형과 재무전략유형에 있어서 각각 달리 나타났다.

넷째, 재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시기는 IMF이전보다 경제환경이 좋지 않아 전체가구평균 618만원의 손실을 보였다. 재무전략유형별로는 다양형, 금융중심형 > 부동산형 > 잔여저축형 > 비제도형의 순으로 높은 재무성과를 성취하였다.

다섯째, 재무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모형에서 아주 많은 변수들이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명력이 매우 낮았다. 반면에 재무전략유형별로 재무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설명력이 상승하였다. 이것은 재무전략유형별로 재무성과의 결정요인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계 재무연구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접근법에 의하면 객관적 경제지표인 재무성과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여하히 대응하여 가계 재무전략을 선택하였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접근법에 의한다면 재무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률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으며, 미래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회피하고자 할 때 그 결과인 재무성과는 미래를 예측하고 선택한 전략이 전개되는 경제 상황과 얼마나 부합되느냐에 따라 상황 의존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가계재무전략의 유형화 작업은 이러한 가계의 전략적 선택행위를 분석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또한 재무성과는 포트폴리오의 선택에 의하여 상황 적응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가계 재무연구의 체계론적 접근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계의 재무성과는 가계특성과 관리행동에 의하여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같은 재무전략을 선택하였음에도 그 집단 내에서 가계 간에 재무성과가 다르다는 것은 이러한 체계론적 접근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가계특성별 재무성

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체계론적 접근의 재무만족도 결정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 재무 설계·상담·교육 관련 제언으로서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무전략 선택 방법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일률적인 재무전략은 없으며 재무전략의 성과가 환경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자산운용방법과 재무전략보다는 환경에 따른 재무전략 선택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가계 특성에 맞는 재무전략의 선택을 지도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가계특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전략을 달리할 경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구체적인 가계 특성과 재무전략 선택과의 관계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자산투자의 조합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분석, 경기예측, 산업분석, 경기순환이 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환경 변화와 적절한 재무전략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1999년과 2000년의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은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다 일반화된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자료의 시계열이 구성되는 시점에서 종단분석을 시행하면 보다 일반화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후속연구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계재무전략의 유형화를 위한 연구와 가계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도 후속연구로서 제안하는 바이다.

- 접수일 : 2004년 07월 14일
- 심사일 : 2004년 07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2월 10일

【참 고 문 헌】

- 계선자·유을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50.
- 김경자·박명숙·정운영(2002). 가계 재무상태와 재무관리행동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28.
- 김숙이(1988). 도시가계의 경제적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 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11(2), 195-207.
- 김연정·김순미(1991). 체계론에 근거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9(4), 151-165.
-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 박근주(1999).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근거한 가계재무전략의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식(1993). **현대재무관리**. 서울:다산출판사.
- 손상희(2000). 소비자재무 및 복지 연구의 성과와 과제. **소비자학연구**, 11(2), 103-121.
- 이상협(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141-153.
- 이선형·이연숙(1997). 노인단독 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31-43.
- 이용숙 (1993). **우리집 재테크**. 서울:일터와 사람.
-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순(1986). **신거시경제론**. 서울:박영사.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정운영·황덕순·홍은실(2002).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25-138.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황덕순·정운영(2001). 재무태도와 재무 의사소통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9(8), 121-135.
- Bodie, Z., Kane, A. & Marcus A. J. (1995). *Essentials of Investments*.(2nd ed) Homewood. IL: Irwin.
- Daft, R. L. (1997). *Management*.(4th ed). New York: Dryden Press.
- Danes, S. M. & Morris, E. 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Family & Economics Issues*, 10(3), 205-215.
- Danes, S. M. & Rettig, K. D.(1993),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 Economics Issues*, 14(4), 365-387.
- Gunnarsson, J. & Wahlund, R. (1994). :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 They do exist? *Paper Presented at the IAREP/SABE Conference*, Rotterdam, July 10-13.
- Heck, R. Z.(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Hira, T. K.(1987), Satisfaction with money management: Practices among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Home Economics*, summer, 19-22.
- Hira, T. K. (1997). Financial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differences by ag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21, 271-290.
-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1990). As-

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59.

Parrotta, J. L. & Johnson, P. J.(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9(2), 59-74.

Titus, P. M., Fanslow, Q. M. & Hira, R.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Wahlund, R. & Gunnarsson, J. (1996). Mental discounting and financial strategies. *Journal Economic Psychology*, 17, 709-730.

Wahlund, R. & Gunnarsson, J. (1997).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in Sweden :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201-233.